

# 한성대신문

1976년 12월 15일 창간

www.hansungnews.com

2024년 4월 22일 월요일 제599호

지면안내 03 사회 학생 따라 예비군 훈련 가는 '학습권' / 04 문화 킷시크, 평범함으로 승부하다 / 05 기획 손쉽게 만들 수 있는 시 커버북, 저작권 침해 가능성 有 / 06 학술 비전 프로로 경험하는 확장현실

## 학복위 대여·주차권, 학생회비 내야 이용 가능



사진: 심민섭 기자

▲학생복지위원회에서 대여할 수 있는 ▲우산 ▲공학용 계산기 ▲충전기 ▲보조배터리와 장당 5천 원에 판매 중인 주차권

1일부터 학생회비를 납부한 학생만 학생 복지위원회(이하 학복위)의 '물품 대여 사업'과 '주차권 공동 구매 사업'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제41대 학복위 'with(이하 위드)'는 지난달 18일 이 같은 내용의 공지를 공식 SNS 계정과 학내 익명 커뮤니티에 게재했다. 두 사업은 지난달 31일까지 학생회비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학생이 이용할 수 있었다. 이용 대상자가 제한되자 학내 익명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일부 학생들은 불만을 제기했다. 위드는 두 사업이 학생회비를 인준받아 진행되는 사업이기에 학생회비 납부자와 미납부자 간 혜택에 차등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과 학생회비를 인준받아 추후에 진행할 다른 사업도 학생회비 납부자로 범위를 한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물품 대여 사업은 ▲우산 ▲충전기 ▲보조배터리 등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대여해주는 사업이다. 공동구매 사업은 1만 원 상당의 교내 주차장 1일 이용권을 학복위 측에서 대량으로 구매해 5천 원에 판매하는 사업이다. 보다 저렴한 가격에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학복위는 학생회비를 인준받아 진행되는

사업이기에 학생회비 납부자만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병진(기계전자 4) 학복위위원장은 "두 사업은 학생회비를 인준받아 진행되는 사업임에도 모든 학생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돼 왔다"며 "올해부터 혜택을 받는 대상의 범위를 알맞게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학생회비 최종 납부 마감 기한인 3월 27일 이후에 바뀐 규정이 적용되도록 변경 날짜를 4월 1일로 정했다"고 덧붙였다.

작년과 달라진 사업 운영 방식에 혼란을 빚은 일부 학생들은 불만 의견을 내비쳤다. 동시에 전체 학생을 위한 복지 혜택 축소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시현(기계전자 3) 학생은 "이전까지는 여러 물품을 대여할 수 있었는데 학생회비를 납부하지 않아 갑자기 대여할 수 없게 된다면 많은 학생의 불편을 야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민서(사회과학 2) 학생 또한 "지난달까지도 모든 학생이 이용할 수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변경된 점이 문제"라고 말했다. 김은서(ICT 2) 학생은 "학생회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제공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이 크게 줄어들는데, 학생의 복지를 위해 일하는 기구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위드는 여러 사업과 행사 중 학생회비를 인준받아 진행되는 것들은 전부 학생회비 납부자에 한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화의 날 행사', '그린 캠퍼스 사업'이 그 대상이다. 그의 학생회비를 인준받지 않고 학교 예산을 지원받아 진행되는 ▲동소문동 행복 기숙사 사생 교통비 지원 ▲문화방 기행단 ▲예비군 버스 대절 등의 사업은 모든 학생이 지원 대상이다. 김 위원장은 "예비군 버스 대절 사업은 작년에 학생회비를 인준받아 진행했지만 올해에는 학교 예산을 사용할 수 있게 돼 모든 학생 대상으로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위드는 학생들의 불만 사항도 인지하고 있으나, 학생회비 납부자와 미납부자 간 혜택의 차이는 분명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 위원장은 "학생회비 미납부자에게도 똑같은 혜택이 제공된다면 학생회비 납부자가 납부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것"이라며 "학복위는 학생들의 더 나은 학교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황서연 기자 hsy040623@gmail.com

## 2024학년도 재선거 종료, 10개 학생자치기구 설립

'2024학년도 학생자치기구 재선거(이하 재선거)'가 4월 3-4일 양일간 실시됐다. 이번 재선거는 지난해 11월 치러진 '2024학년도 학생자치기구 총선거' 당시 후보자가 없어 선거가 무산됐던 창의융합대학과 트랙, 학과(부) 등이 대상이었다.

제3대 창의융합대학 학생회 선거에서는 'F'RE' 선거운동본부의 김희원(문콘 3) 정학생회장 후보와 함현지(문콘 2) 부학생회장 후보가 찬성 378표(92.65%)를 얻어 당선됐다. 투표에는 재적인원 553명 중 408명(73.78%)이 참여했다. 김 당선자는 "건설준비위원장으로 활동하며, 학생들이 즐거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싶다"며 "학생들을 위한 모든 공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크리에이티브인문예술대학에서는 역사문화큐레이션트랙, 영미문화콘텐츠트랙의 트랙학생회장과 무용학과 정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이 선출됐다. 미래융합사회과학대학에서는 ▲글로벌비즈니스트랙 ▲기업·경제분석트랙 ▲공공행정트랙의 트랙학생회장이 당선됐다. 디자인대학에서는 글로벌패션산업학과와 ICT디자인학부의 정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이 선출됐으며, IT공과대학에서는 산업시스템공학부의 정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이 당선됐다.

김동규(사회과학 4)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 과정 내의 개선점과 학생회가 선출되지 않은 단위들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석희 기자 sukhee121@naver.com

## 탐구관 지하에 PBL 강의실 등 신설

'산학공동연구 및 협력활동 강화를 위한 산학협력 세미나실 및 PBL 강의실 개소식'이 지난 12일 탐구관 지하 1층 로비에서 진행됐다. 행사에는 이창원 총장, 장명희 교학부총장, 장문수 총학생회장 등 교내 인사가 참석했다.

탐구관 지하 1층에는 일반 강의실 2곳과 강당, 매점이 존재했으나, 일반 강의실 1곳은 PBL 강의실로 변경됐다. 일반 강의실 나머지 1곳과 매점은 '산학협력 세미나실'로 바뀌었으며, 강당은 변동되지 않았다.

PBL 강의실은 학습자 중심의 강의 활성화를 위해 학습자 간 소통에 최적화된 강의실이다. 각 자리마다 배치된 컴퓨터를 사용해 자료 공유 등이 가능하다. 향

후 PBL 강의실은 산학공동연구 프로젝트 등도 진행하는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PBL 강의실 맞은편에 위치한 산학협력 세미나실은 다수가 모여 회의 등을 진행할 수 있는 공간이다. 가운데에 이동식 벽이 설치돼 회의의 규모에 따라 공간을 넓거나 좁게 이용할 수 있다. 산학협력 세미나실은 본교 산학협력단 홈페이지를 통해 학내 구성원 누구나 예약 후 사용 가능하다.

이은혜(산학교육지원센터) 팀원은 "PBL이나 캡스톤 디자인 수업 활성화를 위해 탐구관 지하 강의실을 PBL 강의실로 재구성했다"고 전했다.

김태형 기자 kth123@hansung.ac.kr

02876,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16 한성대신문사

# 제보하기

학생의 권리를 앞장서 대변하겠습니다

Tel : 02)760-4186  
 Fax : 02)760-4389  
 E-mail : hansungnews@gmail.com  
 KakaoTalk : @hansungnews  
 Instagram : @hansungnews



# 일부 트랙·학과(부), 재선거 후에도 학생회 공석

## “연계 트랙과 연합 운영 등으로 불편 최소화 중” 단과대학 학생회 한목소리

학생회가 출범하지 않은 일부 트랙·학과(부) 소속 학생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 단과대학 학생회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현재 학생회가 없는 8개의 트랙·학과(부)는 연계 트랙의 학생회나 소속 단과대학 학생회를 통해 행사·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학생회가 부재한 트랙·학과(부) 소속의 학생들은 일부 행사나 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등의 불편을 겪는다. 각 단과대학 학생회는 연계 트랙이나 소속 단과대학 학생회를 통한 행사·사업 운영을 이어감과 동시에, 트랙·학과(부) 학생회의 권한과 혜택 등에 대한 홍보를 통해 출마자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제작자를 위한 학과인 IT공과대

학 스마트제조혁신건설학과와 미래플러스대학 소속 학과를 제외하고, 현재 학생회가 없는 트랙·학과(부)는 ▲문학문화콘텐츠트랙 ▲법&정책트랙 ▲스마트도시·교통계획트랙 ▲벤처경영트랙 ▲IT융합공학부 ▲상상력인재학부 ▲AI응용학과 ▲미래모빌리티학과로 총 8곳이다. 이들 단위는 지난해 11월 치러진 학생자치기구 총선거와 이달 3·4일 진행된 학생자치기구 재선거에 모두 출마한 후보가 없었기에 학생회가 출범하지 못했다.

8개의 트랙·학과(부)는 연계 트랙의 학생회나 소속 단과대학 학생회와 함께 활동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문학문화콘텐츠트랙은 문학문화콘텐츠학과 학생회와 연합해 활동하고 있다. 법&정책트랙

은 공공행정트랙 학생회와, 스마트도시·교통계획트랙은 부동산트랙과, 벤처경영트랙은 기업경영트랙, 회계·재무경영트랙의 학생회와 함께 행사·사업을 진행 중이다. 소속 트랙이 전부 모집중지된 IT융합공학부는 IT공과대학 학생회가, ▲상상력인재학부 ▲AI응용학과 ▲미래모빌리티학과는 창의융합대학 학생회가 학과(부) 학생회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연합 형태로 운영되는 트랙·학과(부) 소속의 학생들은 학생회 부재로 인해 일부 행사나 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데 대한 불만 의견을 표출했다. 각 트랙·학과(부) 학생회가 단과대학 학생회비를 인준받아 진행하는 사업은 해당 트랙·학과(부) 소속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

다. 소속 트랙·학과(부)의 건의사항을 대학본부에 제기할 수 있는 대표자가 부재한 상황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법&정책트랙이 제2트랙인 박시현(인문 2) 학생은 “트랙·학과(부) 학생회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단과대학 학생회비 납부라는 조건이 충족돼야 행사·사업에 참여할 수 있지만, 지금은 그 기회마저 없는 것으로 느껴진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학생회는 결국 대학본부에 학생들의 건의사항을 전달하는 매개체로서 존재하는 것”이라며 “대학본부 측에서 일부 트랙·학과(부)의 불편사항을 전달받을 수 있는 방법이 사라지는 것과 닮았다”고 덧붙였다.

또한 학생들은 트랙·학과(부) 학생회의 업무와 혜택 등에 대해 공지

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점을 출마자가 나오지 않은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하기도 했다. 최민서(상상력 1) 학생은 “트랙·학과(부) 학생회의 구체적인 업무 내용 등이 정확하게 알려진다면 관심을 갖고 출마하는 사람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문학문화콘텐츠트랙이 제1트랙인 변은찬(인문 4) 학생 또한 “트랙·학과(부) 학생회의 역할에 대한 공지나 홍보의 부재도 트랙·학과(부) 학생회가 출범하지 못한 결과를 낳는 데 일조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각 단과대학 학생회는 연계 트랙과의 연합 운영 또는 단과대학 학생회 차원의 지원을 통해 트랙·학과(부) 학생회 공석에 따른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일부 단과대학 학생회 측에서는 트랙·학과(부) 학생회에 대한 안내와 홍보를 통해 이 같은 문제를 장기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형기(인문 4) 크리에이티브인 문예술대학 학생회장은 “트랙·학과(부) 학생회의 역할과 학생회장으로서 얻을 수 있는 혜택 등에 대해 홍보가 적극적으로 이뤄진다면 지원자가 늘어날 것으로 본다”며 “내부 논의를 통해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김희원(문문 3) 창의융합대학 학생회장은 “트랙·학과(부) 학생회에 대해 알 수 있는 충분한 공지가 이뤄진다면 학생들이 입후보 진입장벽을 낮출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학우들의 불만을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유성 기자 meteor11@hansung.ac.kr

## 2024 만우절 행사, 성황리에 마무리

만우절 행사가 지난 1일 잔디광장에서 개최됐다. ▲총학생회 ‘한울’ ▲크리에이티브인문예술대학 학생회 ‘INTRO’ ▲미래융합사회과학대학 학생회 ‘청춘’ ▲디자인대학 학생회 ‘FOCUS’ ▲IT공과대학 학생회 ‘공명’ 등이 부스를 운영하며 다양한 이벤트를 선보였다.

한울은 3가지 미니게임에서 점수가 높은 참가자에게 과자 등 간식을 지급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소금빵 크로플도 함께 판매했으며, 한울이 자체적으로 제작한 인스타그램 프레임도 배포했다.

INTRO는 4종 릴레이 게임을 진행해 가장 빠르게 통과한 5명에게 상품을 지급하는 행사를 기획했다. 다양한 맛의 붕어빵 또한 판매했다.

청춘은 청춘 국원과 미니게임 대결을 펼쳐 승리하면 필름 사진을 찍어주는 행사를 기획했다. 교복 등 만우절과 어울리는 의상을 입고 온 학생에게 솜사탕을 증정하기도 했다.

심민섭 기자 artiblanco@hansung.ac.kr

FOCUS 부스는 참가자가 직접 제작한 그림으로 키링을 제작하는 행사를 기획했다. 제작된 키링을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업로드하면, ‘좋아요’ 수에 따라 3명에게 상품이 지급됐다. FOCUS 국원과 5가지 미니게임을 진행해 승리하면 젤리 등의 간식을 지급하는 행사도 진행했다.

공명은 참가자가 자신의 별명과 연락처 등을 작성해 막대사탕에 붙여놓으면 다른 사람이 가져가 연락을 취하는 ‘두근두근 사탕 소개팅’을 기획했다. 4가지 게임을 가장 빠르게 성공한 3명에게 상품을 증정하는 행사도 진행했다.

행사에 참여한 김민구(사회과학 3) 학생은 “만우절 행사에 참여해 보니 재미있고, 유쾌한 행사인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장문수(컴공 4) 총학생회장은 “다양한 단과대학의 학생들이 다 함께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 만우절 행사를 기획했다”고 밝혔다.

심민섭 기자 artiblanco@hansung.ac.kr

## 학습 부진 학생을 위한 ‘학습컨설팅’ 참여자 모집

‘2024학년도 1학기 학습컨설팅’ 참여자를 오는 28일까지 모집한다. 교수학습센터는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재학생의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해 매 학기 학습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컨설팅에 참여한 학생은 체계적인 학습 상담 등을 통해 학습전략을 수립할 수 있으며, 소정의 비교과 포인트를 얻을 수 있다. 스마트자기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직전 학기 학사경고자와 학사경고에 근접한 학생을 우선 선발한다.

컨설팅 참여자는 학습에서 미흡한 부분을 확인하는 ‘MLST-II’ 검사와 본교생이 갖춰야 할 학습역량을 진단하는 ‘HS 6대 학습역량’ 등의 학습진단검사를 사전에 진행한다. 이후 해당 검사 결과에 따라 1:1 컨설팅을 받는다. 컨설팅은 전문 학습상담사가 참여자의 학습전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상담·지도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1회 50분간 대면으로 진행되는 컨설팅을 6회에 걸쳐 이수하며, 5회 이상 참여해야 이수 처리된다. 컨설팅은 5월

7일부터 6월 17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컨설팅 종료 후에는 학습진단 검사를 재차 진행해, 학습역량의 변화 정도를 측정한다.

컨설팅은 회차당 5pt의 비교과 포인트가 지급되며, 6회를 전부 이수하면 40pt를 받는다. 또한 참여자 예전 추후 교수학습센터가 주관하는 학습지원 프로그램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기회가 부여된다. 직전 학기 학사경고자가 학습컨설팅을 이수한 경우, 성적 향상 정도에 따라 최대 90만 원의 성적향상장학금도 받을 수 있다.

학습컨설팅과 관련해 차정은(교수학습센터) 학술연구원은 “참여자의 심리적 안정 및 학습 습관 개선 등 정서적 측면과 행동적 측면 모두 다루기 때문에, 교수학습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중 매우 인기가 높은 프로그램”이라며 “현재 어떤 학습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지, 어떤 점을 개선하고 싶은지 상세하게 작성된 신청서는 선발 확률이 높다”고 강조했다.

심민섭 기자 artiblanco@hansung.ac.kr

## 교육대학원, 핀란드 교육 특강 개최

‘Global 프로그램 특강-핀란드 교육’ 특강이 지난 9일 상상관 컨퍼런스 홀에서 개최됐다. 본교 교육대학원과 교육대학원 동문회가 주최한 이번 특강은 학내 구성원에게 핀란드의 교육 정책과 방식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진행됐다. 핀란드 헬싱키 대학교에서 교환교수를 역임했던 김병찬(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가 특강을 진행했다. 행사에는 신재흠 교육대학원장, 이장원 총장을 비롯한 교직원과 교육대학원 학생 및 동문 등 교내외 인사 다수가 참석했다.

특강에서 김 교수는 ▲교육행정 및 리더십 ▲유아교육 ▲상담 심리 ▲AI·SW 교육 분야로 나뉜 핀란드 교육이 추구하는 바를 설명하며, 교육행정 및 리더십 분야에서는 학교의 가치와 이념을 구축하고, 학내 구성원의 동기를 자극해 변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교직자의 역할을 강조했다. 유아교육 분야에서는 아동이 자라온 환경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해 아동

의 잠재적 역량을 개발하는 핀란드의 교육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상담심리 분야에서는 일반 학교의 상담교사 수를 국어, 수학 과목 등 주요 과목의 교사 수와 비슷하게 배치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상담을 실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AI·SW 교육 분야에서 디지털 기기와 종이 교과서를 연계하는 등의 융합적 교육과정을 통해 학생주도학습을 이뤄내야 한다고도 밝혔다.

특강을 주최한 신 교육대학원장은 “교육대학원의 활성화와 재학생, 동문 간 만남의 장을 만들기 위해 특강을 개최했다”며 “교육 현장에 종사하는 교육대학원 동문들이 핀란드 교육의 우수한 점을 접목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한 이 총장은 “교육대학원의 전공들과 핀란드의 교육문화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며 “교육 현장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승희 기자 sun2sideup03@naver.com

# 한성대신문 독자칼럼 모집

### 낙산에 올라 소리치는 당신의 생각

지원자격 | 한성대학교 재학생

주제 | 자유 주제

분량 | 제목 제외, 공백 포함 약 1,100자 (200자 원고지 기준 5.5매)

혜택 | 비교과 포인트 10pt 지급  
칼럼이 신문에 게재될 시 소정의 원고료 지급

모집기간 | 상시 모집

접수방법 | 한글 프로그램으로 칼럼을 작성하여

hansungnews@gmail.com으로 제출

\*제출 시 칼럼제목/이름/학과 및 제1트랙/학년/연락처/계좌번호 함께 기재

문의 | 한성대신문사 02)760-4186

카카오톡채널 @hansungnews

인스타그램 @hansungnews

# 학생 따라 예비군 훈련 가는 '학습권'

매년 참여해야 하는 학생예비군  
보장 미진행 등 문제 다수 발생  
학습권 보장 법령 강제성 높여야

제56주년 예비군의 날이었던 지난 5일, 윤석열 대통령은 축전에서 "학생예비군의 학습권 보장 등 예비군 권익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여러 대학에서 학생예비군의 학습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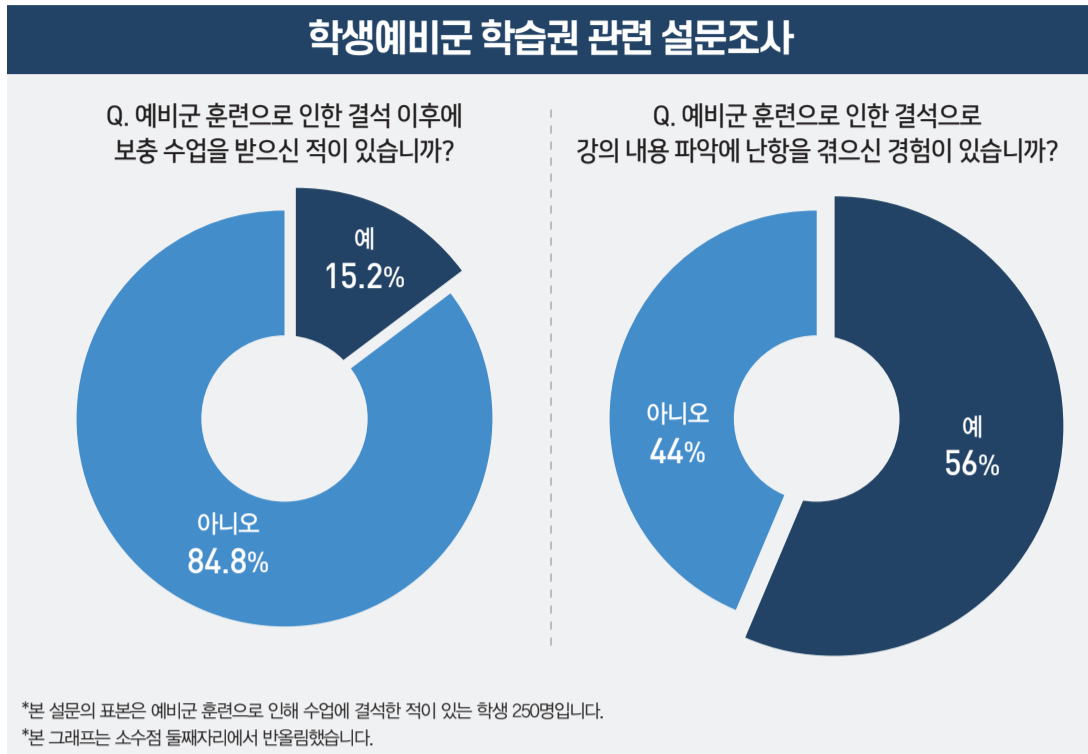
예비군은 전쟁 등 국가비상사태 하에서 현역 군부대의 활동에 동원될 목적으로 1968년 창립돼 지금에 이르고 있다. 예비군은 훈련자의 직업에 따라 ▲동원예비군 ▲향토예비군 ▲지역예비군 ▲대학직장예비군 ▲어민예비군 ▲선박예비군 등으로 편성된다. 병 전역 시 1~4년차까지는 2박 3일간 시행되는 동원훈련을 받아야 하고, 5~6년차까지 연 20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라면 동원훈련 대상에서 제외돼 하루 8시간 진행되는 학생예비군 훈련을 받으면 된다.

『예비군법』 제5조에서는 예비군 훈련으로 인한 동원 명령을 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명령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동원에 응하지 않거나 훈련 기피 목적으로 거주지를 거짓으로 변경했을 경우 동법 제15조 제4항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예비군 훈련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법령도 존재한다. 『예비군법』 제10조와 제10조의2에서는 피고용인이나 학생이 예비군 훈련을 받을 때, 그 기간을 휴무 또는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7조의3에서도 예비군 훈련으로 인해 수업에 결석했을 경우 출석으로 인정하고, 수업 관련 자료나 보충 수업을 제공하며 성적 처리 등에 있어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다. 예비군 훈련으로 인해 수업 공백이 발생했을 때 출석 인정 및 학습권 보장을 법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본지는 일선 교육현장에서 대학생 예비군의 학습권이 어떻게 보장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예비군 훈련에 참여해야 하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생예비군 학습권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본 설문조사는 4월 8일부터 16일까지 구글폼을 통해 진행됐으며, 250명의 학생예비군 훈련 대상자가 응답을 남겼다. 조사 결과 관련 법령에서 출석 인정을 보장하고 있음에도, 예비군 훈련으로 인해 결석 처리된 사례가 일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비군 훈련 참여로 인해 수업에서 결석 처리된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예(44%)', '아니오(95.6%)'의 응답이 기록됐다.

뿐만 아니라 결석 시 수업 자료를 제공받지 못하



나, 제공받았음에도 수업 자료가 질적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예비군 훈련으로 인해 수업에 불참했을 때 수업 관련 자료를 제공받으신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예(58%)', '아니오(42%)'의 응답이 집계됐다. 제공받은 자료가 정규수업의 내용과 차이가 있고 자료만으로는 수업 내용의 전부를 파악할 수 없다는 지적도 존재한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 심재민 학생은 "강의가 수반되어야 수업 자료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다"며 "자료가 있어도 강의를 수강한 사람과 아닌 사람은 내용을 이해하는 데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훈련 참여에 따른 학습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보충 수업은 더욱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응답자들은 '예비군 훈련으로 인한 결석 이후에 보충 수업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예(15.2%)', '아니오(84.8%)'라고 답변을 남겨, 80%가 넘는 응답자가 보충 수업을 제공받지 못했다. 이에 대해 강현권(경기과학기술대학교 군사학과) 교수는 "예비군 훈련 참여로 인해 결석하는 인원이 소수일 경우 교수 입장에서는 기존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문제로 인해 예비군 훈련에 참여한 다수의 학생들은 강의 내용을 파악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로 '예비군 훈련으로 인한 결석으로 강의 내용 파악에 난항을 겪으신 경험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예(56%)', '아니오(44%)'의 답변이 기록됐다. 남서울대학교 스포츠비즈니스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원준혁 학생은 "예비군 훈련 참여로 인해 수업에 결석해 진도를 따라가는 데 어려움이 컸다"며 "제공받은 수업자료

만으로는 강의 내용 파악에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실제 교육현장에서 학생예비군의 학습권이 보장되지 못하는 원인으로는 학교 자체 규정의 미비함이 꼽힌다. 본지가 수도권 4년제 대학 71개 대학에 학생예비군 학습권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는지에 대해 전수조사한 결과, 14개 대학(19.7%)은 규정에 학습권 보장이 명시돼 있지 않고 교수의 재량에 맡기고 있었다. 정일동(경북과학대학교 군사행정과) 교수는 "학습권 보장 등의 사항을 교수 재량으로 맡길 경우 교수의 편파적인 조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예비군법』과 『고등교육법 시행령』의 학습권 보장 관련 조항의 강제성이 부족한 것 또한 문제의 원인으로 지적된다. 『예비군법』의 관련 조항은 '예비군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등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불리한 처우'라는 표현이 모호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어 구체적으로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구체적인 학습권 보장 방법을 명시하고 있으나 처벌 조항이 없어 강제성이 부족하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서울 소재 대학에서 예비군 훈련으로 인해 수업에 불참했다는 출석 성적을 감점한 사례가 있었으나 감점은 학교 측에서 불이익 최소화를 위한 공문을 발송했다는 점에서 '혐의없음'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강 교수는 "법령은 세부적인 내용을 시행규칙에 명시해 구체적으로 처벌이 이뤄져야 하지만 불이익이라는 표기는 광범위한 의미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예비군 훈련에 참여하는 학생의 편의를 위해 훈련장

까지의 교통 여건을 보장하는 '예비군 버스'도 운행하지만, 그마저도 운행되지 않거나 편도로 운행되는 등 불편이 발생한다. 실제로 '귀하의 학교는 예비군 버스를 운행합니까?'라는 질문에 '예(78.5%)', '아니오(21.5%)'의 응답이 기록됐다. '예비군 버스의 운영 형태는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는 '왕복(76%)', '편도(24%)'의 응답이 기록됐다. 심 학생은 "훈련장까지 이동하는 데 드는 택시비 15,000원 가량을 4명에서 분할 결제하면 약 3,700원으로, 예비군 훈련 시 지급되는 교통비 8,000원 내에서 해결된다는 답변을 받았다. 그러나 택시비 분할 결제를 위해 4명을 모으기는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예비군 훈련 참여로 인한 결석 시 출석을 인정해주고 보장을 진행하거나 수업 자료를 제공하는 등 학습권 보장을 위한 조치가 학교 규정에도 명확하게 명시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교수의 재량에 의한 조치가 아닌 학칙 등으로 강제해야 학습권 보장을 위한 조치가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조규석(군인권센터 기획정책팀) 팀장은 "각 대학에서 학생들을 위한 조치를 학칙으로 제정하고 교수와 근로계약 시에 이를 명시하는 방식으로 실효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수업 자료 제공만으로는 강의 내용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에, 보충 수업이 필수로 진행될 수 있도록 대학본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수업자료와 보충 수업의 질적 향상을 위한 조치도 동반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김기환(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예비군 훈련 일정과 대학의 교육 일정을 맞추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며 "불가피하게 어렵다면 수업을 녹화해 제공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예비군에 대한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한 법령이 지금보다 강제성을 갖도록 개정돼야 한다는 해결책도 제시된다. 법을 위반해도 처벌 수위가 낮거나 이뤄지지 않아 실질적으로 효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에 법령의 강제성을 제고하고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조언이 뒤따른다. 조 팀장은 "예비군 훈련 참여로 인한 성적 불이익을 불법화하는 등 구체적인 논의가 있어야 현행 제도 보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대학본부 차원에서 예비군 훈련을 위한 행정 서비스 확대의 필요성도 제시된다. 현재 예비군 버스를 운행하고 있지만 버스를 넘어서 훈련의 편의성을 제고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조 팀장은 "예비군에 대한 관심과 처우개선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수도권 4년제 대학 71개 : 『고등교육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대학'·'교육대학', 산업·전문·원격·기술대학과 각종학교, 학생예비군 훈련 대상자가 없는 여자대학교를 제외한 범주이며, 이원화 캠퍼스는 본교와 동일한 대학으로 간주하고 본교는 본교와 상이한 대학으로 처리했다.

김유성 기자 meteor11@hansung.ac.kr  
이승희 기자 sun2sideup03@naver.com

## 그 법의 어제와 오늘

'장애인의 날'이 지난 20일 제44회를 맞이했다. 『장애인복지법』 제14조에서는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높이고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정하고 있다. 장애인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은 발전을 거듭해 왔으며, 장애인의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위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활동법)도 마련돼 있다. 그러나 장애인활동법이 장애인의 자립에 더욱 도움을 주려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장애인활동법은 신체·정신적 장애 등으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지원하고자 제정됐다. 이 법에서는 혼자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힘든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사' 인력을 지원하고, 활동지원사가 장애인에게 신체·가사활동, 목욕, 간호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의 자립을 돕고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법률이 필요하다는 여론은 2000년대부터 형성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해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을 위한 법률이 먼저 제정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고, 이는 2007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제정으로 이어졌다. 이 법은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에게 신체·가사활동 등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시 이 법에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키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고

## 장애인 지원 발목 잡는 장애인활동법

령화에 따른 대비가 급선무라는 이유로 인해 최종적으로 제외된 채 제정됐다.

장애인 인권단체 등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처럼 장애인의 활동을 도울 수 있는 법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보건복지부가 2009~2010년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운영함과 동시에 관련 입법을 추진했다. 시범 운영을 통해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가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지게 됐고, 2011년에 이르러 장애인활동법이 제정됐다.

그러나 장애인활동법이 장애인의 생활에 더욱 도움이 되려면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활동지원사의 자격요건이 빈약해, 장애인과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로 업무를 보는 활동지원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애인활동법 제27조에 따르면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의 자격을 갖춘 사람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활동지원사교육기관에서 42시간의 교육을 받으면 활동지원사로 일할 수 있다. 상술한 자격이 없는 사람도 활동지원사교육기관에서 50시간의 교육을 이수하면 활동지원사 업무를 시작할 수 있다.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별도의 자격검증 과정이 부재해, 전문성 있는 활동지원사를 양성할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조한진(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전문성 문제는 이전부터 제

기돼 왔다"며 "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활동지원사가 제공할 만큼 충분한 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일상생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건강지원 형태의 기초의료행위를 활동지원사가 수행하지 못한다는 문제도 있다. 기초의료행위는 의학적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한 치료로,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의료행위를 말한다. 이는 휘어진 척추를 펴기 위해 진행되는 마사지나 기도에 막힌 가래를 흡입하는 석션 등의 행위를 포함한다. 활동지원사의 지원유형을 명시한 장애인활동법 제16조에 따르면 장애인의 가사활동이나 이동활동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지원들만이 명시돼 있다. 의사나 간호사보다 장애인과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며 생활하는 활동지원사의 업무 범위에 기초의료행위가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진다. 김민수(시흥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수수팍다리) 소장은 "활동지원사가 결에 있음에도 기초의료행위를 제공하지 못한다"며 "갑작스럽게 장애인에게 찾아오는 병증 등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더 큰 위기를 야기한다"고 말했다.

활동지원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장애인활동법 제27조에 명시된 활동지원사의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의견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활동지원사 자체를 자격증화해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제시된다. 다만 자격증화와 같은 전문성 제고가 실현된다면 활동지원사에 대한 정부의 예산 확대

가 우선적으로 이뤄진 후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정부의 예산이 있어야 활동지원사의 교육 환경을 전문적인 교육 환경으로 발전시킬 수 있으며 관련 자격증화도 추진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조 교수는 "활동지원사에 대한 정부의 예산이 확대된 이후 법에 활동지원사의 전문성을 제고하도록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위급상황 시 장애인이 즉각적으로 기초의료행위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의료행위가 가능한 방문 간호사 인력을 확충하고, 활동지원사가 기초의료행위를 직접 수행할 수 있게끔 장애인활동법 제16조 장애인활동지원 유형에 기초의료행위를 추가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조 교수는 "간호사 등 의료행위가 가능한 이들과부터 장애인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며 "활동지원사가 기초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 개정 역시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가 장애인에게 더욱 도움되는 서비스가 되려면 장애인활동법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조 교수는 "앞서 언급한 문제 외에도 중증장애인 소외 문제, 활동지원사의 적은 시급,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종류와 빈약함 등에 대한 해결 방안이 하나하나 법에 규정돼있어야 한다"며 "정부와 장애인 관련 단체들 간의 지속적인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황서연 기자 hsy040623@gmail.com



문화는 내가 제일 잘 알지

“요즘 애들은 왜 그래?” 어느 세대나 그랬듯, 현 젊은 층도 자주 듣는 물음이다. 진짜 요즘 애들은 왜 그럴까? 그래서 알아보았다. MZ세대 사이에서 유행하는 것만 보면 사족을 못쓰고 달려드는 기자가 그 속으로 뛰어 들었다. MZ세대의 대표주자인 기사를 따라 청년이 열광하는 것을 파헤쳐보자.

지극히 평범해 패션계에서 도외시됐던 모범생 룩의 반란이 시작됐다. 모범생 이미지지만 시크한 느낌을 주는 ‘긱시크’가 청년들 사이에서 각광받기 시작한 것이다. 청년들의 어린 시절, 혹은 그 너머 과거에 유행했을 형형색색의 다양한 안경, 꾸민 듯 꾸미지 않은 느낌의 단정한 의류, 그리고 주근깨를 강조하거나 강한 하이라이트로 독특한 느낌을 더해주는 스타일링까지. 과짜미 넘치지만 시크한 긱시크 문화를 알아보자.

황서연 기자 hsy040623@gmail.com

### 시크한 과짜들의 룩, 긱시크

비주류였던 긱시크 스타일이 최근 청년들 사이에서 주목받고 있다. 긱시크는 과짜라는 뜻의 긱(geek)과 세련됨을 뜻하는 시크(chic)가 합쳐진 단어로, 단정하지만 독특하고 세련된 스타일을 나타낸다. 어수룩한 모범생을 뜻하는 너드(nerd) 스타일의 세련됨과 멋스러움을 더한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할 수 있다.

긱시크는 글로벌 패션업계가 올해 패션 키워드로 ‘프레피(preppy)’를 꼽은 것에서 시작했다. 프레피란 교복처럼 단정한 셔츠와 면바지 등을 입는 공부를 잘하는 학생을 뜻한다.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내는 것이 특징이다. 프레피룩은 지적인 분위기를 내며 보다 정돈된 외모와 고품질 소재의 의상을 추구한다. 이러한 프레피룩에 너드미를 더해 트렌드에 앞서가는 긱시크룩이 과생됐다. 이재영(평택대학교 패션디자인및브랜딩학과) 교수는 “긱시크 룩과 너드룩, 그리고 프레피룩은 모두 평범한 학생 스타일을 기반으로 하며 프레피룩에 너드한 감성을 세련되게 접목한 것이 긱시크룩”이라고 말했다.

긱시크에 대한 관심은 패션업계를 타고 유명 인플루언서나 연예인들을 거쳐 청년들에게 퍼졌다. 인플루언서나 연예인을 패션 선망의 대상으로 보며 그들이 추구하는 긱시크 스타일을 청년이 수용한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인플루언서의 영향으로 청년이 긱시크 스타일을 수용하며 그 안에서 타인의 모방이 아닌 차별된 자신만의 스타일을 추구한다”고 설명했다.

### 긱시크하면 ‘안경’이지!

지금까지의 안경이 가진 이미지는 가라. 긱시크라면 얇아 없어도, 테가 시야를 가려도 괜찮다. 안경은 긱시크 스타일링을 완성하는 아이템이 되기 때문이다. 강윤주(한성대학교 글로벌패션산업학부) 교수는 “긱시크 스타일에서는 오히려 모범생 스타일의 안경이 세련되고 멋있는 스타일의 완성 요소가 됐다”고 전했다.

안경은 의상보다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어 긱시크의 중심에 설 수 있었다. 여러 옷을 입는 것이 아닌 안경 하나만 갈쳐도 긱시크 스타일을 표현할 수 있다는 가성비 때문에 많은 청년이 소비한다는 분석이다. 이 교수는 “청년들에게는 패션 감각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안경 하나를 택하는 것이 영리한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긱시크의 인기를 등에 업고 안경 브랜드들도 더 독특하고 다양한 안경을 만드는 데 집중하기 시작했다. 젊은 세대가 추구하는 옛날 감성과 과짜스러운 느낌을 자아내는 안경 브랜드가 더욱 사랑받는 것이다. 플라스틱이나 금속과 같은 다양한 소재부터 동그랗거나 각진 형태 등 모양의 차이까지, 각기 다른 독특한 안경은 긱시크의 시크한 이미지를 표현해낸다. 강 교수는 “미우미우, 발렌시아가 등 안경의 유행을 이끄는 브랜드에서 다양한 패션 안경을 선보이고 있다”며 “안경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으로 젊은 세대가 추구하는 옛 감성과 과짜스러운 느낌이 나는 안경 브랜드가 각광받는다”고 설명했다. 세종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인 김수연 학생은 “청년들은 기존에는 어수룩하다고 생각해 쓰지 못했던 안경을 세련된 코디와 조합해 잘 어울리는 룩을 만들어냈다”고 밝혔다.

이러한 긱시크 안경 유행에 힘입어 기자도 직접 긱시크 분위기의 안경을 찾고자 SNS상에서 수많은 청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빈티지 안경 매장 ‘쥘리움티크’를 방문해 봤다. 수많은 안경 중 테 옆으로 눈 보안용 플라스틱이 장착돼 있는 초록색 뿔테 안경이 기자 눈에 들어왔다. 제작된 지 30여 년 된 안경이었다. 어디를 가도 쉽게 볼 수 없는 디자인이기에 기자만 갖고 있다는 희귀성에 구매 욕구가 샘솟았다. 빈티지 안경을 파는 김희주(쥘리움티크) 사장은 “긱시크가 유행하며 빈티지 안경을 찾는 손님이 많을 정도는 작년보다 있었다”며 “긱시크 하면 안경이 빠질 수 없기에 젊은 세대가 긱시크를 표현하려 매장에 많이 방문한다”고 설명했다.

# 긱시크, 평범함으로 승부하다



사진: 김유성 기자



셔츠

중치마

빈티지 안경

단화

사진: 김유성 기자

- 1 전체적인 긱시크 스타일링을 완성한 기자가 포즈를 취한다.
- 2 빈티지 안경샵에서 각기 다른 빈티지 안경을 구경하는 기자
- 3 기자가 긱시크 스타일링에 어울리는 메이크업을 한다.
- 4 빈티지 매장에서 긱시크 룩을 찾는 기자

“현대사회의 모든 산업 분야는 SNS를 중요한 마케팅 도구로 활용한다”며 “SNS를 통해 청년들이 긱시크 패션을 소비하는 양상은 트렌드를 수용하고 변화시키는 자연스러운 사회 현상”이라고 전했다. 김 학생은 “주로 패션 브랜드와 협업해 여러 가지의 긱시크 코디를 알려주는 짧은 길이의 영상이 많은 것 같다. 긱시크룩을 처음 시도하는 사람들도 용이하게 참고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긱시크는 고급스러운 옷보다는 조금은 어수룩한 빈티지 의상이 핵심이다. 어린 시절 할머니 옷장에 있을법한 셔츠나 치마 등을 활용한다면 전체적으로 너드미에 시크한 분위기를 더할 수 있다. 긱시크 스타일로 미니 스커트나 발랄한 롱 스커트 대신 무릎을 겨우 덮는 애매한 기장의 중치마가 주목받는 것도 빈티지 의상을 추구하는 청년들의 인식에서 시작했다. 동덕여자대학교 문예창작전공 2학년에 재학 중인 김민지 학생은 “빈티지 의상으로 긱시크에 포함된 지적인 이미지와 너드미를 표현하면서도 개성 있는 시크함을 드러낼 수 있는 긱시크 스타일의 옷을 구하려 빈티지 매장에 방문하곤 한다”고 전했다.

기자도 긱시크 스타일을 표현하고자 유명 SNS 코디 셋업을 참고해 긱시크 코디 셋업을 골라 빈티지 옷의 성지인 동묘 구제시장에서 긱시크 의상을 구매해봤다. 많은 빈티지 매장 중에서 특히나 청년들의 발걸음이 잦은 매장은 긱시크 유행을 반영한 의상이 즐비했다. 기자가 방문한 ‘808빈티지’ 가게는 영업 전부터 청년들이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 정도로 청년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다. 체크 셔츠 등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는 여러 옷들이 가득했기에 긱시크를 표현할 의상을 구매할 수 있었다. 이상근(808빈티지) 사장은 “대부분 비슷한 옷을 많이 입고 다니기에 지금은 제작되지 않는 스타일의 자신만의 옷을 찾고자 빈티지 가게를 방문하는 청년들이 많다”고 말했다.

### 꾸민듯 꾸미지 않은 느낌, 긱시크 메이크업

긱시크 메이크업은 꾸민 듯 꾸미지 않은 느낌으로 전체적인 메이크업이 진하지 않다. 이는 본래 모습 그대로를 강조하고자 하는 긱시크 메이크업의 특성으로 긱시크 스타일에 완벽함을 더해준다. 김수연 학생은 “한 듯 안 한 듯한 자연스러운 연출이 긱시크 메이크업의 핵심”이라며 “긱시크 메이크업은 화려하기보다는 단정하고 정제된 느낌을 준다”고 말했다.

주근깨를 강조하면서, 밝게 부각하고 싶은 부분에 바르는 하이라이터가 진하다는 것이 긱시크 메이크업의 특징이다. 과거엔 주근깨를 가리는 메이크업이 주된 양상이었다. 그러나 자연스러움을 추구하는 긱시크 메이크업에서는 주근깨가 있는 모습이 메이크업의 자연스러움을 표현하는 수단이 됐다. 때문에 주근깨가 있는 자신의 본래 모습 그대로를 표현하거나 주근깨가 없더라도 일부러 그려서 자연스러운 피부 상태를 만드는 것이다. 이 교수는 “주근깨 등을 강조하는 것은 깨끗한 피부를 추구하는 우리나라 뷰티 시장의 경향을 벗어난 유행”이라며 “패션에 있어 타인과 차별화를 이룰 수 있는 자신만의 개성이 중요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긱시크 스타일로 완벽히 변신하기 위해 기자가 직접 긱시크 메이크업에 도전해 봤다. 유튜브에 긱시크 메이크업 방법에 관한 영상이 많이 올라와 있어 멀리 가지 않아도 손쉽게 긱시크 메이크업을 연출할 수 있었다. 직접 메이크업을 해보니 긱시크 메이크업만의 특이점이 눈에 띄었다. 긱시크에서 안경을 빼놓을 수는 없기에, 안경의 코 받침이 닿는 피부에 파우더를 살짝 바르는 단계가 존재하는 것이다. 긱시크 스타일의 옷과 안경에 자연스러운 긱시크 메이크업까지 더해지면 비로소 완벽한 긱시크 스타일링이 연출됐다. 주근깨를 그리고 긱시크 스타일링의 안경까지 장착하니 청년들이 열광하는 ‘힙’스러움이 가득하다.



사진: 김유성 기자



사진: 김유성 기자

# AI의 두 얼굴

“시리아, 지금 몇 시야?” “헤이 빅스비, 친구에게 전화 걸어줘.” 스마트폰에 탑재된 인공지능(AI)에게 한 번쯤 해본 말이다. 시간을 안내하고 전화를 걸어주던 인공지능은 이제 실시간으로 외국어를 통역하고 방대한 양의 정보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게 정리하는 등 엄청난 발전을 거듭해왔다. 지금도 인공지능은 스스로 학습하고 발전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인공지능이 우리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커지고 있다.

그렇다면 인공지능의 발전이 과연 우리에게 좋은 점만 가져다줄까. 인공지능은 인간의 명령을 곧이곧대로 따를 수밖에 없기에, 인간이 인공지능을 범죄에 활용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인공지능의 잘못된 활용 사례와 부작용 등을 알아야 더욱 발전할 인공지능을 슬기롭게 활용할 수 있을 테다.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원하는 가수의 목소리로 변조해 들을 수 있다. 특정 인물의 목소리가 담긴 음성 파일만 있으면 마치 그 사람이 노래를 부른 것처럼 노래가 완성된다. 타인의 목소리를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는 것일까? 인공지능 커버곡(이하 AI 커버곡)의 원리와 그로 인해 나타나는 사회 문제를 알아보자.

김유성 기자 meteor11@hansung.ac.kr



## 손쉽게 만들 수 있는 AI 커버곡, 저작권 침해 가능성 有

### 좋아하는 노래를 원하는 가수의 목소리로

오래 전 세상을 떠난 가수들이 최근의 대중가요를 부르는 상상을 해본 적 있는가. 과거에는 상상에만 그쳤던 일이 현실로 다가왔다. 원곡에 특정 인물의 목소리를 합성한 노래인 AI 커버곡 덕분이다. 가수부터 코미디언 등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이용해 제작된 AI 커버곡은 유튜브 등의 플랫폼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인터넷에서 MR\*이나 가수의 목소리를 쉽게 구할 수 있고, AI 커버곡 제작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누구나 완성도 있는 결과물 제작이 가능하다. 어떻게 다양한 목소리를 합친 노래를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일까?

AI 커버곡을 생성하려면 가장 먼저 음원 파일에서 목소리와 배경음악을 분리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음원에는 가수의 목소리와 코러스, 예코, 배경음악 등 다양한 요소가 혼재해 있다. 목소리만을 따로 추출하기 위해 배경음악 등 음원 내 다른 요소들을 없애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역위상’이 활용된다. 역위상이란 음원 내에서 배경음악이 갖는 특정한 주파수와 반대되는 주파수를 입혀서 소리를 소거하는 과정이다. 소리는 위아래로 진동하는 파동의 형태로 우리 귀에 들어온다. 하나의 파동은 그 진동수와 완벽히 반대되는 진동수를 가진 파동을 만나면 사라진다. 역위상은 이 점을 이용해 완벽히 반대되는 파동으로 배경음악을 삭제한다. 김경백(전남대학교 인공지능융합학과) 교수는 “역위상을 활용하는 것이 음원으로부터 깨끗한 목소리를 확보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목소리를 추출했다면 다음으로 확보해야 하는 것은 배경음악이다. 최근에는 가수의 앨범이나 동영상 플랫폼 등에서 MR을 쉽게 구할 수 있지만, MR을 구하는 것이 어렵다면 목소리를 추출하는 과정과 동일하게 역위상을 활용해 배경음악만 추출하면 된다. 목소리만이 가진 진동수를 반전시켜 없애면 배경음악을 얻을 수 있다.

다만 배경음악이나 코러스 등 제거해야 하는 요소의 주파수가 가수 목소리의 주파수와 유사한 대역에 있을 경우, 역위상 과정만으로는 가수 목소리만 깔끔하게 추출하기 어렵다. 이를 보완하고자 대량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복잡한 과정을 학습시켜 스스로 수행하도록 만드는 기술인 ‘딥러닝(Deep-Learning)’이 사용된다. 인공지능에게 사람의 목소리를 학습시켜 다양한 악기 소리가 섞인 배경음악에서 사람의 목소리

만을 추출하게 만든다. 인공지능의 신경망 속에 사람의 목소리가 학습돼 여러 소리가 혼재된 상황에서도 사람의 목소리만을 인식해 추출하는 것이다. 기타 등 악기가 갖는 특징과 사람의 목소리가 갖는 특징이 상이하기 때문에 사람의 목소리만을 인식하는 것이 가능하다. 안창욱(GIST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 교수는 “인공지능이 사람의 목소리가 갖는 특징을 인식해 원곡 음원 파일에서 분류할 수 있다”고 전했다.

AI 커버곡 제작에 사용될 목소리와 배경음악을 추출했다면 2가지를 합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는 ‘RVC(Retrieval-based-Voice-Conversion)’ 프로그램이 사용된다. RVC 프로그램은 목소리의 억양이나 톤, 발음 등 특징을 조작해 다양하게 변조·생성할 수 있는 기술이다. AI 커버곡에 들어쓰고자 하는 가수의 목소리 파일을 RVC 프로그램에 삽입한다. 프로그램 내 인공지능 기술이 목소리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재구성하며 학습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 과정을 거치면 목소리의 톤 등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 배경음악은 반주의 높낮이가 쉬지 않고 바뀌다 보니 RVC 프로그램을 통해 손쉬운 변조가 가능한 목소리 파일을 첨부해야 한다. 안 교수는 “사용자가 원하는 목소리를 RVC 프로그램을 통해 훈련시키면 그 목소리가 배경음악에 적절한 자유로운 변환에 최적화된 음성 파일이 된다”고 밝혔다.

RVC 프로그램이 음성을 학습하는 과정에서도 딥러닝이 사용된다. RVC 프로그램은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의 목소리를 학습할 수 있다. 같은 가수의 목소리를 사용하더라도 한 가수가 부른 여러 노래를 학습해 다양한 톤과 억양을 학습하는 데 용이하다. 많은 종류의 목소리를 학습하고 분석하는 과정을 거쳐 음성 파일을 쉽게 변조할 수 있게 된다.

이후 RVC 프로그램 내에서 목소리 파일을 AI 커버곡을 제작할 배경음악 파일에 합성하도록 지정한다. 배경음악이 가지고 있는 음악적 특징에 맞게 음성 파일 속 목소리의 톤을 변환시켜 이질감 없게 노래를 만든다. 이 과정을 거치면 우리가 들을 수 있는 AI 커버곡이 완성된다.

\*MR(Music Recorded) : 노래반주 및 연주음 감성을 목적으로 가수의 목소리가 빠진 연주만으로 제작된 음원

### 배경음악과 목소리가 넘나드는 법의 경계

AI 커버곡이 양산되면서 다양한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가수가 실제로 부르지 않았음에도 마치 실제로 부른 듯한 느낌을 자아내는 음원 파일이 유튜브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유통되고 있다. AI 커버곡을 접한 이들은 신기함을 느낌과 동시에 완벽에 가까운 목소리 변조에 대한 우려도 함께 표하고 있다.

AI 커버곡이 양산되는 원인으로는 생성 프로그램만 이용하면 누구나 어렵지 않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이 꼽힌다. 특별한 기술 없이, 프로그램에 MR과 음성 파일만 넣으면 완성도 있는 AI 커버곡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유승익(한동대학교 BK21 법 미래인재 양성사업단) 교수는 “AI 커버곡과 그렇지 않은 작업물을 구분할 수 있는 기술이나 기준이 없다”고 말했다.

AI 커버곡의 배경음악으로 인해 저작권 침해가 빈발하고 있다. AI 커버곡을 제작하기 위해 사용한 배경음악 등이 타인의 저작물임에도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사용한다면 이는 저작권법 위반이다. AI 커버곡이 다수 제작되고 플랫폼을 통해 배포되면서 이 같은 저작권법 위반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이다. 박준우(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AI 커버곡 원곡의 저작자인 작사자와 작곡가의 허락 없이 AI 커버곡을 제작 및 공개하는 행위가 저작권 침해임은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AI 커버곡에 사용되는 목소리를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퍼블리시티권이 침해될 수도 있다. 퍼블리시티권이란 초상이나 성명, 음성 등 특정인의 정체성을 상업적으로 이용해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목소리의 경우 창작물이 아닌 개인의 인격 요소이기 때문에 목소리를 사용해도 저작권법에 위배되지 않지만 퍼블리시티권은 침해된다. 박 교수는 “가수 등 유명인의 목소리를 허락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한다면 당사자에게 돌아가야 할 이익이 제3자에게 돌아가게 되는 문제가 있다”고 전했다.

고인이 된 가수의 목소리를 유족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 또한 문제의 소지가 있다. 『저작권법』 제128조에서 저작자가 사망하면 유족이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고인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경우 명예회복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규정이 존재함에도 유족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고인의 목소리가 사용되는 경우도 존재한다. 이상직(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는 “고인의 목소리를 이용해 제작

된 AI 커버곡이 고인의 명예를 실추시킬 경우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AI 커버곡이 양산되며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기에, AI 커버곡을 배경음악 등의 저작자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제작할 경우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AI 커버곡이 완전히 새로운 창작물이 아닌 원곡의 배경음악과 가사를 토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원곡에 대한 저작권을 준수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유 교수는 “AI 커버곡에 대해 규제하는 법률 개정을 통해 AI 커버곡 무단 생성을 완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퍼블리시티권이 침해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퍼블리시티권 관련 법률을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현재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통해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갖는 타인의 초상이나 음성만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AI 커버곡은 널리 알려진 유명인이 아닌 인물의 목소리라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퍼블리시티권 관련 법률 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현행법상으로는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목소리만이 보호 대상”이라며 “보호 대상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AI 커버곡으로 인한 고인의 명예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유족의 사전 동의 없이 고인의 목소리를 사용할 경우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현재 고인의 목소리로 제작된 AI 커버곡을 유튜브 등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유족 동의 없이 고인의 목소리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 고인의 목소리를 함부로 사용하는 행태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고인의 목소리를 기반으로 해 AI 커버곡을 제작한다면 유족에게 고인의 목소리에 대해 주장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생성 프로그램을 통해 누구나 완성도 있는 AI 커버곡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워터마크 등을 통해 AI 커버곡임을 명시해야 한다고 말한다. AI 커버곡임을 명시하는 것과 더불어 저작자나 가수 등 해당 노래에 대한 정보를 삽입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워터마크를 이용하는 것은 AI 커버곡 무단 제작 방지뿐만 아니라 합법적으로 제작된 AI 커버곡이 투명하게 유통되기 위한 좋은 수단”이라고 조언했다.

# 비전 프로로 경험하는 확장현실

## 현실과 가상을 넘나들다

현실 세계에 가상 공간의 모니터를 띄워놓고 업무하는 장면을 수많은 영화에서 접해왔을 테다. 이는 더 이상 영화 속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다. 애플이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를 연결하는 기기인 '비전 프로(Vision Pro)'를 지난 2월 미국에서 처음 출시했기 때문이다. 현실과 가상공간을 마치 한 공간처럼 연결시켰다는 점에서 비전 프로는 그 자체로 혁신이라 불리고 있다. 현실과 가상을 연결시키기 위해 어떤 기술을 사용한 것인지, 향후 비전 프로가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지 알아보자.

비전 프로는 '증강현실', '가상현실'과 '혼합현실'을 활용해 '확장현실'을 구현해 내는 기기다. 증강현실이란 현실 세계에 컴퓨터가 만든 가상의 이미지를 덧씌우는 기술이다. 현실 세계를 배경에 두고, 포켓몬을 시각적으로 구현하는 게임 '포켓몬 고'가 증강현실의 대표적인 예시다. 가상현실이란 말 그대로 가상 공간에 현실을 구현한 것으로, VR기기를 쓰면 현실과 전혀 다른 또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 것 또한 가상현실을 이용한 기술이다. 여기에 애플은 상술한 두 기술의 장점을 결합한 혼합현실까지 더해 확장현실을 구현함으로써 현실 공간에서 가상의 이미지를 보기만 하는 것을 넘어, 만지는 등의 상호작용 또한 가능하게 했다.

애플은 확장현실을 구현하는 자사만의 기술을 '공간 컴퓨팅(Spatial Computing)'이라 명명했다. 공간 컴퓨팅 기술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위치 추적 시스템 ▲센서 ▲입력 장치 ▲공간 매핑 ▲컴퓨터 비전 ▲공간 사운드 등의 기술이 서로 상호작용해야 한다.

비전 프로는 '위치 추적 시스템'을 통해 사용자의 위치를 파악하고, 해당 공간에 어울리는 적절한 이미지와 소리 등을 사용자에게 제시한다. 때문에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를 매끄럽게 연결하기 위해서는 위치 추적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 송현철(남서울대학교 가상현실학과) 교수는 "비전 프로 속 위치 추적 시스템은 디지털 콘텐츠와 현실 세계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것을 가능케 한 애플의 혁신적인 기술"이라고 전했다.

사용자의 위치를 추적하는 데에는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가속도계 ▲자이로스코프\* ▲자력계 ▲적외선\*\* 카메라 등이 이용된다. 인공위성을 활용함으로써 널리 쓰이고 있는 GPS 기술을 통해 사용자의 위치를 추적한다. 비전 프로를 착용하고 있는 사용자가 움직일 때는 가속도계를 통해 가속도를 측정하고, 자이로스코프는 사용자 신체의 기울어진 정도를 측정한다. 자기장의 세기와 방향을 재는 자력계는 사용자의 동작과 방향 등을 추적하는 데 이용된다. 또한 적외선 카메라를 통해 물체로부터 나오는 적외선을 감지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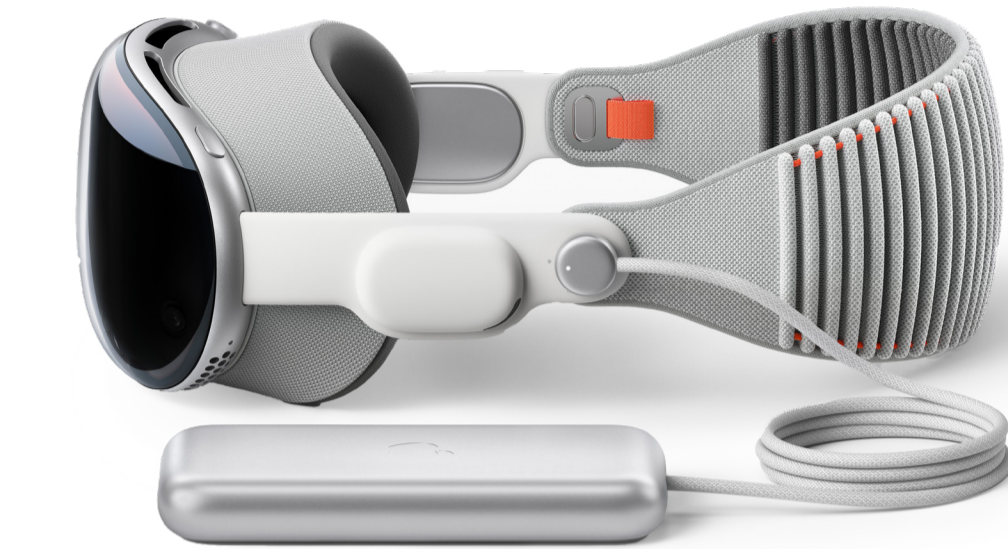


사진 제공 : 애플

물체와 기기 간의 거리를 측정한다.

비전 프로는 '센서'를 통해 사용자의 말을 듣고, 얼굴을 인식하고, 행동을 파악하기도 하는 등 사용자와 상호작용하는 데 있어 센서를 이용한다. 또한 사용자에게 더욱 적절하고 알맞은 확장현실과 디지털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센서를 통해 현실 세계의 이미지나 소리 등 수많은 정보를 수집한다.

▲내장 카메라 ▲마이크 ▲제스처 인식 시스템 ▲버튼 등이 비전 프로의 대표적인 센서들이다. 내장 카메라는 사용자의 얼굴과 동작 등을 인식하고, 마이크는 비전 프로가 사용자의 음성과 현실 세계의 소리를 듣는 역할을 한다. 제스처 인식 시스템은 내장 카메라와 더불어 사용자의 동작을 인식하는 데 쓰인다. 버튼은 흔히 알려져 있듯 버튼을 누르는 동작을 감지함으로써 전원을 켜고 끄거나 화면을 전환하는 등의 상호작용을 진행한다. 이외에도 탑재된 여러 카메라 등을 통해 현실세계의 이미지 정보 등을 수집한다.

'입력 장치'는 말 그대로 사용자가 비전 프로에게 내린 명령을 입력해, 비전 프로가 명령에 따라 작동하도록 하는 기술이다. 사용자가 마이크나 버튼 등의 센서를 통해 비전 프로에게 명령을 전달하면, 입력 장치를 통해 비전 프로가 그 명령대로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공간 매핑' 기술은 사용자가 처해 있는 현실 세계를 디지털 환경으로 변환시키는 기술의 총체를 일컫는다. 비전 프로에 장착된 여러 카메라 센서를 통해 수집된 이미지나 영상 등을 분석해 현실 세계의 입체적 특

가 다르게 들리는 원리를 디지털 세계에도 구현함으로써, 사용자가 디지털 세계에 더욱 빠져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공간사운드가 실현되는 데에는 ▲바이노럴 오디오(Binaural Audio) ▲앰비소닉스 오디오(Ambisonics Audio) ▲헤드 트래킹(Head Tracking)의 기술이 쓰인다. 먼저 바이노럴 오디오는 인간이 소리를 감지하는 방식과 동일하게 헤드셋을 통해 사용자에게 소리를 제공한다. 헤드셋을 끼면 사용자가 디지털 공간에 들어가 그 공간 속 소리를 직접 듣는 듯한 느낌을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앰비소닉스 오디오는 비전 프로를 착용한 사용자를 중심으로 두고 주변의 소리 정보를 360도로 저장해 사용자에게 들려준다. 이는 사용자에게 360도 각 각 회전율에 맞는 소리를 제공한다. 헤드 트래킹은 헤드폰에 내장된 모션 센서로 사용자의 머리 움직임을 감지한다. 사용자의 움직임에 따라 소리도 같이 움직이게 돼 결국 사용자에게 동일한 소리를 들려주게 된다.

이처럼 수많은 기술을 통해 구현된 확장현실을 직접 보고 느끼는 데에는 비전 프로의 화면 또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비전 프로의 화면은 '마이크로LED'\*(Light-Emitting Diode, 발광 다이오드)와 '마이크로OLED(Organic Light-Emitting Diode, 유기 발광 다이오드)'라는 2개의 LED로 이뤄져 있다. 초소형 LED와 OLED는 화면의 화소 수를 늘림으로써 이미지를 보다 선명하게 구현할 수 있다. 또한 밝은 빛을 자아내는 마이크로LED와 선명한 색상을 보여줄 수 있는 마이크로OLED가 상호보완하면서, 선명한 색상과 밝은 빛을 동시에 보여줄 수 있다.

비전 프로는 컴퓨터 기술의 무한한 확장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확장현실이라는 공간상에서 사용자와 기기,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의 상호작용을 보여주며 비전 프로를 사용해 새로운 디지털 세계의 탐색을 가능하게 만들기도 했다. 최승호(한성대학교 기초교양학부) 교수는 "가상 세계 속 캐릭터와 이야기하며 생활할 수 있는 현실이 빠른 시일 내에 다가올 것"이라며 "비전 프로를 시작으로 인공지능, 혼합현실 등이 융합된 분야가 성장할 것"이라고 전했다.

\*자이로스코프 : 가로, 세로, 높이의 3개 축을 기준으로 움직임을 인식하는 센서 장치

\*\*적외선 : 인간의 눈에 보이는 빛보다 파장이 긴 빛으로,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음

\*\*\*LED : 전류를 흐르게 하면 빛을 발하는 전자기기 부품

황서연 기자 hsy040623@gmail.com

이예지 기자 iyeji129@gm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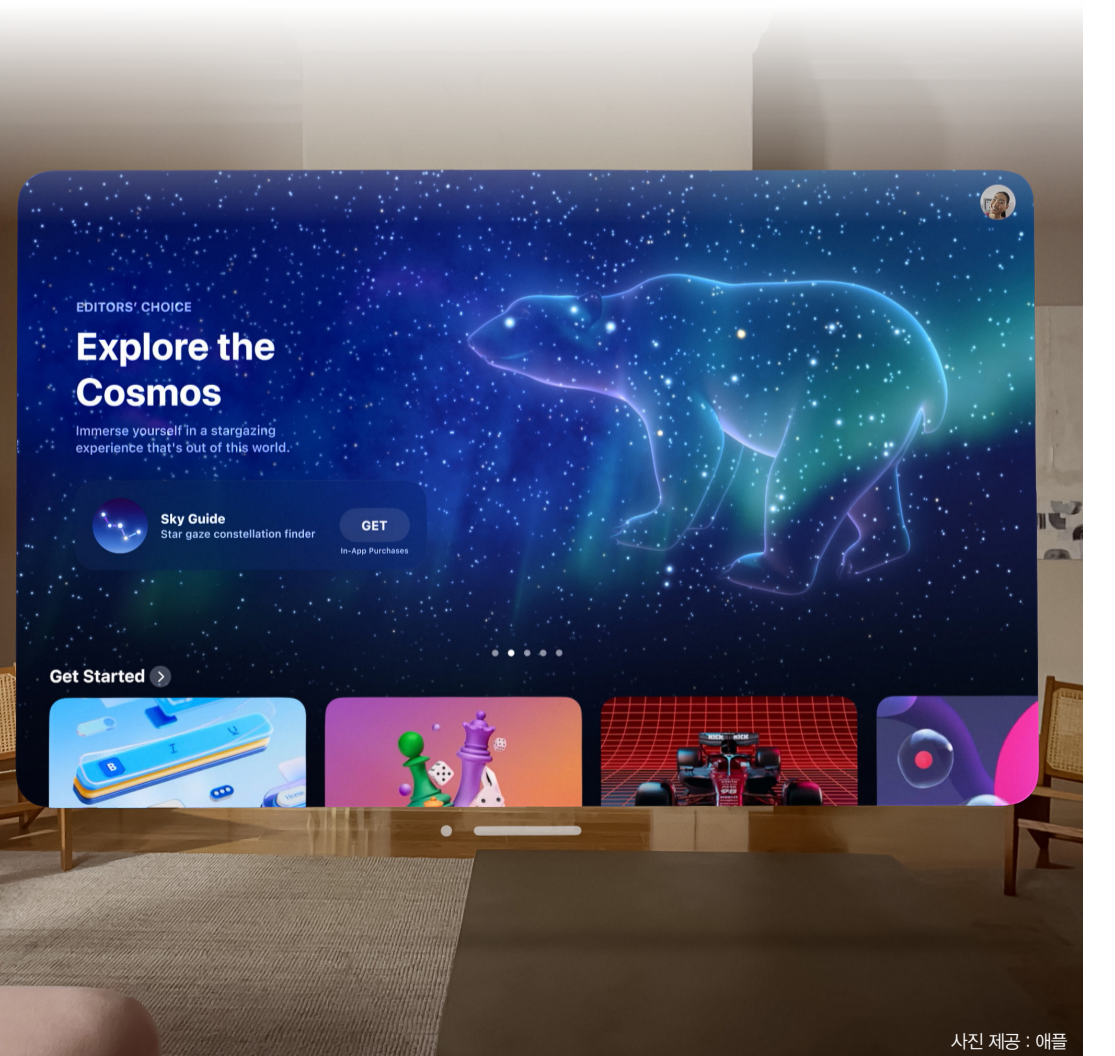


사진 제공 : 애플

\*외부 필자의 칼럼은 본사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삼 학 송 ·

# 모두를 위한 복지가 학복위의 존재 이유다

최근 '학생회비 납부 여부'가 많은 학생들의 입길에 올랐다. 제41대 학생복지위원회(이하 학복위) 'with(이하 위드)'가 물품 대여 사업과 주차권 공동구매 사업 등 일부 복지 사업의 대상자를 학생회비 납부자로 한정하는 조치를 취했기 때문이다. 위드는 지난해 11월 총선거 이전에 치러진 정책토론회 및 후보자토론회에서도 물품 대여 사업은 학생회비 납부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겠다고 밝혔지만, 불과 5개월여 만에 입장을 번복한 것이다. 학복위의 대표적인 복지사업으로써 작년까지도 대상자에 제한이 없었기에, 일부 학생들의 반발은 당연한 수순이었다.

위드는 '학생회비 납부자와 미납부자의 복지 혜택에는 차이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학생회비를 인준받아 진행되는 복지 사업의 대상자를 전체 학생으로 둔다면, 학생회비를 납부자가 납부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복지'가 무엇인지 되돌아보면, 복지 사업에 차등을 둘 수 없는 이유를 알 수 있다. 복지의 사전적 정의는 '행복한 삶'이고, 구성원을 위한 복지 정책은 구성원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다. 대학에서의 학생 복지 사업이란, 학생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윤택한 학교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일 테다. 어떤 학생이든 불편함 없이, 윤택하고도 편하게 학교에서의 시간을 보낼 권리를 가진다. 학생 복지 사업의 수혜를 입는 데 어떤 제한이나 조건도 존재할 수 없는 이유다.

더 큰 문제는 급변 조치가 학복위의

본래 목적을 망각한 처사라는 점이다. '학복위는 한성대학교 전체 학생의 복지를 담당하는 기구다.' 학생회칙 제63조에서 규정하는 학복위의 지위와 역할이다. 학복위를 선출하기 위한 선거에서도 선거권자는 '학생회비 납부자'가 아닌 '해당 학기 재학생 전원'이다. 위드가 마땅히 전체 학생의 복지를 위해 힘써야 한다는 본질을 잊은 것과 다름없다.

이번에 대상자가 축소된 대여 물품 사업과 같은 복지 사업은 각 단과대학 학생회 등 여타의 학생자치기구에서도 그 대상자를 학생회비 납부자로 한정해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학복위만큼은 대상자 제한이나 조건을 뒤서는 안 된다. 학생회칙과 학복위라는 이름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 학복위의 존재 이유는 '학생 복지'이기 때문이다. 학복위 스스로 존재 가치와 역할을 지키려면 어떻게 사업을 운영해 나가야 하는지 조금 더 고민했어야 한다.

위드는 학생회비를 인준받아 진행하는 다른 사업도 대상자를 학생회비 납부자로 한정해 진행할 것이라는 계획을 전했다. 재고가 필요해 보인다. 위드는 지난해 치러진 학생자치기구 총선거 당선 직후 본지와와의 인터뷰에서 '학생복지위원회라는 이름에 걸맞게 학생들의 복지를 책임지겠다'는 다짐을 밝힌 바 있다. 이러한 다짐, 그리고 학복위라는 이름이 무색해지지 않으려면 전체 학생을 위한 복지 사업이 필요하다. 앞으로 위드가 제 역할을 충실히 다하는 학생자치기구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정상혁 편집국장

## ■ 의화정

### 글로벌 한성을 상상한다

미래도시를 꿈꾸는 듯 디자인 갤러리로 꾸며진 한성대 '상상대로'는 늘 합하다. 대강당과 글로벌 광장에서 열리는 창작공연과 전시와 축제와 지역 이벤트로 대학은 연중 뜨겁다. 연구관 커다란 벽면에 설치된 무지갯빛 집단 창작 모자이크가 대표적인 한성대의 포토존이다. 이 대학에서는 한양 성곽을 배경으로 세계 최고의 석양 패션쇼가 개최되며 옥상 정원에서 신비로운 발레공연과 처용무를 볼 수 있다. 낙산 소나무 숲에는 작은 숲속 공연장과 야외 아트 카페도 있어서 지역 주민들의 힐링 공간이 됐다. 서울 최고의 한양도성 전망 레스토랑 한성이 있으며 건물을 잇는 스카이 위크는 낙산부터 성북동, 창신동, 동대문과 대학로를 잇는 지역 재생의 무지개다리다 됐다. 상상관 로비와 상상카페는 창작과 전시, 창업과 협업으로 신나는 크리에이터들의 메이커 스페이스가 됐다. 노후한 장수마을과 노인회관은 청년들의 창업카페와 다문화 뮤지엄 공간으로 변신하여 낙산의 글로벌 엔지니어가 됐다. 새로 착공한 한성 백년관은 지역과 세계가 어우러지는 스페인 빌바오의 구겐하임과 같은 명품 걸작으로 탄생할 것이다.

40여 개국 출신 외국인 유학생들은 벌써 3천 명이 넘는다. 유학생들은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한성대만의 Study and Work in Hansung 프로그램을 통해 학비 걱정 없이 일하면서 한국어도 배

우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다. 동대문 패션타운과 창신동 봉제공장, 동대문 다민족 집거지 레스토랑과 상점들, 대학로와 성북동의 공연예술 매카들은 외국인 학생들이 한성대에서 공부하고 싶은 최고의 매력적인 환경이다. 이들 유학생은 학부와 대학원을 한성대에서 4년 만에 마치고 이 지역에 정주하면서 지역 주민이 돼 간다. 한성대는 7개의 해외 캠퍼스와 세종학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30여 세계 유수의 대학들과 이중학위 협정을 체결하여 아시아 국가들뿐 아니라 이탈리아, 독일, 스페인, 브라질, 미국 등 전 세계에서 한국을 공부하기 위해 찾는 열정적인 학생들로 넘쳐난다. 한성대는 한마디로 컬러풀하고 한성대인들은 창조하기 위해 태어난 자들(Born to Create)이다. 이들은 누구나 교수님과 함께 창업하고 창작하고 만들어 내고 전시하고 여행하고 봉사한다. 한성대는 구성원 모두의 꿈을 실현하는 상상 공동체이다. 진정한 상상 인간, 이 마키나스들의 대학이다.

한성은 세계로! 세계는 한성으로! 이 슬로건이 실현되려면 꿈틀대는 상상력이 발동해야 한다. 대학이 최고의 상상력 실현장이 되어야 하고 모두의 꿈을 실현할 열린 유니버스가 되어야 한다. 세계가 한성으로 오는 것도 상상에서 시작하고 한성이 세계로 나가는 것도 상상력의 힘이 있어야 한다. 이태주(상상력교양대학 소양핵심교양학부) 교수



## 줄어든 시간, 늘어난 한숨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외 2개 단체는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평등권, 기본권 등을 침해하는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을 지난 15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진행했다.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은 육아, 가사 등으로 인해 전일제로 근무할 수 없어 임용 시부터 통상 공무원의 근무 시간인 주당 40시간보다 적게 일한다. 이러한 국가직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은 임용권자가 임의로 근무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조항을 약화하면서 생존권을 위협받는 수준의 급여를 받는 경우가 발생한다. 또한 같은 시간선택제 공무원임에도 육아휴직 등으로 전일제에서 시간선택제로 전환한 공무원과 비교해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은 승진하는 데 더 긴 시간이 걸린다. 국가를 위해 일하는 공무원이 국가 때문에 생계를 위협받는 상황이 지속되지 않도록 정부는 시급히 규칙을 개정해야 한다.

황서연 기자 hsy040623@gmail.com

## ■ 기자수첩

### 축제의 본질을 흐리는 주범, 브로커

바비큐 한 접시 5만 원, 순대 한 접시 2만 원. 소비자 입장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가격이다. 그러나 이러한 가격이 당연시되는 곳이다. 바로 '축제'에서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여러 지역에서 축제가 개최됨에 따라 음식을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에 판매하는, 이른바 '바가지' 문제가 또다시 불거지고 있다. 바가지 문제가 지역 경제를 살리고 지역의 특색을 알리고자 하는 축제의 본질을 저해하고 있다. 정부는 이 문제의 근본적 원인을 인지하지 못하고 적절한 해결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바가지 문제의 근본적 원인은 '브로커'에게 있다. 브로커는 축제 주최 측으로부터 상인들이 활동하는 공간을 대량 구매한 뒤 이를 상인에게 비싸게 되파는 이들을 말한다. 축제에서 장사하고자 하는 상인들은 브로커로 인해 비싼 값을 주고 축제에 들어

갈 수 밖에 없다. 상인들은 브로커로 인한 급진적 손실을 메우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음식 가격을 높여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지역 축제의 목적은 지역에 대한 인식 제고와 지역 상권 활성화 등으로 이는 '지방소멸'이 발생하는 현대에 더욱 필요한 요소다. 브로커의 이 같은 행태는 축제의 본래 목적이 실현될 수 없게 한다는 점에서도 문제다. 많은 소비자가 축제에 방문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지역 홍보 효과나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개인의 금전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활동하기 때문이다.

실정이 이러함에도 정부는 여전히 상인들을 규제하는 데만 혈안이 돼 있고, 브로커 근절을 위한 대책은 내놓지 않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7월 발표한 '착한 가격 캠페인'의

주요 내용은 음식 가격을 내리기 위해 상인을 계도하는 방안과 상인과 합된 음식 가격을 사전에 공지하는 등의 방안뿐이었다. 정부가 상인을 계도할 방안뿐만 아니라 브로커 근절을 위한 대책도 시급히 마련해야 하는 이유다.

지역 축제가 그 목표를 달성하려면, 축제 개최 과정에서의 감독을 강화하고 상인 선별 과정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브로커를 없앨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더불어 상인의 음식점 운영 실적 등 구체적인 활동 내역을 확인한다면 축제에 참여하는 상인과 브로커를 선별함과 동시에 질 높은 음식을 축제에서 제공할 수 있을 테다. 축제를 찾은 관광객과 상인이 축제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브로커 소탕을 위해 힘쓸 때다.

김태형 기자 kth123@hansung.ac.kr

## ■ 낙산에 올라

악성 댓글, 흔히 악플이라고 불리는 이것은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다. 악플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언제나 사소한 이유로, 순식간에 그것에 휩싸이게 된다. 어른들에게 살갑게 군다고 호감을 샀던 연예인이 예의 없다고 평가받는 사람이 되는 것은 한순간이다. 이러한 악플의 피해자가 연예인에만 국한되지는 않는다. 평범한 일반인 또한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순간 악플의 대상이 된다. 악플을 쓰는 이들의 심리는 무엇이며, 악플이 근절되기는 정말로 어려울까.

악플을 행하는 이들은 비판과 비난을 구분하지 못한다. 자신이 누군가를 섣대질하는 것은 매우 합리적인 행위라고 생각하며, 누군가를 공격하는 자신의 손가락을 심판의 기준이라고 생각한다. 우스운 것은 사람

## 악플, 그 불씨를 끄기 위해

들은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으로 시선을 돌린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이 가리키고 있는 곳으로 나의 손가락을 펼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어마어마한 쓰레기 더미에 종이 쪼가리 하나를 버리는 정도의 양심이 따를 뿐이다. 그것이 진실인지 거짓인지는 중요하지 않으며 그저 본인들의 손가락질을 받을 대상이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악플은 익명성을 보장하는 매체들로 계속해서 불어나고 있다. 매체의 발달로 나의 익명성을 지키는 동시에 남을 공격하는 것이 쉬워졌다. 인터넷에서의 익명성은 악플을 다는 사람들이 공격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악플을 담으로써 일어나는 결과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다. 매체의 익명성을 이용해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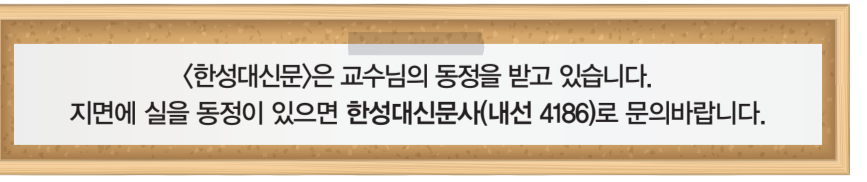
신의 신원을 드러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공격한다. 하지만 악플의 큰 원인이 되는 익명성이 영원히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기술의 발달로 IP 주소 추적, 디지털 포렌식 등을 이용해 익명 뒤에 숨어있던 악플러를 찾아내는 것이 가능해졌다.

악플은 현대판 마녀사냥이라고도 볼 수 있다. 어쩌면 모두는 이 마녀사냥의 방관자이며, 혹은 가해자일 것이다. 누군가가 악의로, 혹은 심심풀이로 던지는 불꽃을 막기란 쉽지 않다. 우리는 물을 끼얹어 불꽃을 끌 수 없더라도, 바람을 막아 더 커지려 하는 불길의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더 이상의 죄 없는 사람들이 마녀로 몰려 불길에 휩싸이지 않기를 바란다.

황승민(인문 2)

## 기자사령

뒤 수습기자 김지윤(문론 2)



# 제18회 사진공모전

찰나의 순간이 영원으로 남길

## 모집기간

3월 25일(월) ~ 4월 26일(금)

## 참가대상

본교 학부 재학생

## 주 제

자유(주제에 제약 없음)

## 제출사항

응모작, 참가신청서  
(교내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 제출방법

- ① 온라인 제출 : hansungnews@gmail.com로 제출  
\*응모작 규격 : 장축 4000px 이상의 jpg 파일
- ② 오프라인 제출 : 한성대신문사  
(중문 우촌관 앞 IBK기업은행 건물 2층)에 직접 제출  
\*응모작 규격 : 8X10in(20.3X25.4cm) 인화 사진

## 수상작 발표

한성대신문 제601호 (6월 10일 발행)

## 시상내역

최우수작(1명) : 상장 및 상금 40만 원  
가작(1명) : 상장 및 상금 20만 원

## 비교과 포인트

대회참가 10pt  
당선 후 수상소감 작성 시 10pt 추가 지급

## 문의사항

- 한성대신문사 02)760-4186
- 카카오톡채널 @hansungnews
- 인스타그램 @hansungnews

- ※ 1인당 최대 3점 응모 가능합니다.
- ※ 참가신청서의 파일 이름은 '(제출자 이름)\_제18회 사진공모전 참가신청서'로 합니다.
- ※ 작품의 파일 이름은 '(제출자 이름)\_작품제목.jpg'로 합니다.
- ※ 타 사진공모전 출품작의 중복지원을 불허합니다.
- ※ 스마트폰, 필름사진, DSLR, 미러리스로 촬영한 사진 모두 규격 준수 시 응모 가능합니다.
- ※ 포토샵 등 합성과정을 거친 사진은 불허합니다.  
(단, 간단한 색보정은 허용)
- ※ 제출한 응모작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 ※ 심사는 외부 심사위원이 진행합니다.
- ※ 최우수작이 없을 시 가작만 시상합니다.

